\*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본인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000자 이하 )

협업의 시너지

어릴 적부터 로봇동아리를 하며 많은 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로봇 컨테스트 선물배달 종목 팀장을 맡으며 기술적인 부분보다 의견수렴과 소통문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동이 끝나면 개개인에게 전화를 돌려, 활동에서 어려웠던 부분과 개인 의견을 제때 피드백 받았고 이를 다음 역할분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로 배려하며 협동한 결과 '은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통을 통해 서로 보완하며 조화가 잘 이루어 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성인이 되어 각종 조직활동을 할 때 큰 장점이 되었고, 개발을 할 때 Slack, Github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이 팀플하고 싶은 선배' 라는 호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업을 통해 기른 소통능력과 협동력은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술해 주십시오.

--소제목 ------------------

나은 삶을 추구하는

저는 일찍이 적성을 발견하고, 적성과 흥미를 역량으로 길러왔습니다.

어릴 적,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18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시골과 도시를 오가며 변화가 잦다 보니, 혼자서도 몰두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과학상자'를 접하게 되었고, 평소 세심하고 집중력이 좋았던 저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본 선생님의 추천으로 '로봇'을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전국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대표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하여 Technology Award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찍 프로그래밍과 제어 라는 적성을 찾은 저는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심화된 역량을 더욱 길러왔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주관하는 ICT개방형 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한이음'에 참여하여 실무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드론 제작과 제어' 였습니다. 아두이노와 Multiwii 소스를 사용하여 비행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재 선정을 잘못하거나 코드 에러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추락하고,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때 로봇 제작 경험을 살려 파손된 드론을 고쳐가며 시험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PID 제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팀원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시소테스트, 호버링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끈기의 결과로 비행에 성공하였을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이용한 챗봇 제작, 아두이노와 각종 센서, 모터, 3D 프린트기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토대로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 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역량을 펼치며 도전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원분야와 관련해 최근에 가장 관심 가진 주제를 1개 선택하여,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